

배포 일시	2022. 9. 29.(목)		
담당 부서 <총괄>	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종오 (044-201-3817) 팀 장 양찬윤 (044-201-4770)
		담당자	사무관 장상준 (044-201-4756) 사무관 성경림 (044-201-381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.

-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이 유료 호출 선택 시 수요-공급 상황에 따라 차등부과 -

< 보도내용('22. 9. 29. 동아일보) >

◆ 연말 서울 심야택시 호출...콜비 포함 기본료 1만원

○ 당정, 호출료 최대 5천원 추진.. 타입2 최대 5천원.. 타입3 최대 4천원..

< 보도내용('22. 9. 28. jtbc) >

◆ 이번엔 택시비... '상암에서 강남까지' 최소 5천원 오른다

○ 택시를 호출 앱에서 부르려면 무조건 호출비를 내도록 검토...

-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.
- 다만,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, 검토 중인 심야 탄력 호출료는 기본료가 아니며 승객이 유료 호출을 선택할 경우에 한해 부담하게 되는 최대 금액으로, 무료호출 기능은 그대로 유지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심야 탄력 호출료는 택시 수요-공급 상황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것이며, 플랫폼 택시 종류별 심야 탄력 호출료 상한선 수준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니, 언론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